

증시활황에 코스닥 ETF 돈 몰려

바이오株가 펀드 수익률 좌우

코스닥150 ETF 수익률 53%
자산운용사별 종목 구성 달라
바이오주 편입 비중 고려해야

코스닥시장 호조를 보이자 투자자금이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로 쏠리고 있다. 다만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 전상장을 앞두고 있고, 바이오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ETF 상품별 특징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 초 이후 17일까지 코스닥은 11.04% 올랐고, 최근 3개월 간 지수상승률은 34.45%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코스닥 상위 150개 종목에 투자하는 코스닥150 ETF의 평균 수익률은 52.69%에 달했다.

지수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상품별 수익률 차는 크지 않지만 상장된 3개 코스닥 150 ETF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150'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수익은 53.02%, 1년 전 1083억원에 불과하던 순자산은 16월 기준 255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해당 ETF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을 시총 비중에 따라 종목을 편입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셀트리온의 비중이 27.96%로 가장 크고, 셀트리온헬스케어(9.98%), 신라젠(4.99%) 순으로 높다. 다만 셀트리온이 2월 중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신라젠 등 나머지 종목의 편입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코스닥150'과 KB자산운용의 'KBSTAR 코스닥150'은 최근 3개월 간 각각 52.83%, 52.23%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바

<주요 코스닥 ETF 상품 수익률 및 특징> *수익률기준: 1월 16일.

상품명	최근 3개월 수익률	순자산 (억원)	특징
TIGER 코스닥150	53.02%	2550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 중심으로 운용
KODEX 코스닥150	52.83%	7282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 중심으로 운용
KBSTAR 코스닥	52.23%	2374	코스닥150지수의 구성 종목 중심으로 운용
TIGER 코스닥150 로우볼	32.38%	103	(스마트베터) 코스닥 상위 150종목 중 변동성이 낮은 순으로 자산 편입
KBSTAR KQ고배당	32.03%	651	(스마트베터)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 중 현금배당액이 높은 순으로 자산 편입

바이오레버리지 ETF제외. 최근 3개월 수익률 상위 코스닥 ETF. /한국예탁결제원 SELbro

이오주의 변동성과 위험을 피하면서 코스닥 상승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스마트베터 방식으로 운영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바이오주 편입 비중이 낮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 간 코스닥 레버리지와 바이오 관련 ETF를 제외하고 수익률이 가장 좋은 코스닥 ETF는 'TIGER 코스닥150로우볼'과 'KBSTAR KQ 고배당'이다. 각각 32.38%, 32.0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TIGER코스닥150로우볼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총 상위 150개 종목 중 변동성이 낮은 50종목을 골라 변동성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종목 간 비중 편차는 크지 않다. 차바이오텍이 3.99%의 비중으로 가장 많이 편입돼 있으며 이지바이오(3.00%), 셀트리온(2.79%), 리노공업(2.57%) 등 50개 종목이 2%씩 골고루 편입돼 있다.

윤주영 미래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기업가치(밸류)가 높은 기업들 중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상품이다"고 말했다.

코스닥 배당주에 투자하는 KBSTAR KQ고배당 ETF도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해당 ETF 편입종목은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진다. 먼저 시총 상위 600개 기업 중 전년도 말 기준 배당수익률이 높은 80개 종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 현금배당 총액에 따라 편입 가중치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억을 배당하고, B기업이 1억을 배당했다면 A기업을 3분의 2, B기업을 3분의 1씩 편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셀트리온이 28.05% 비중으로 편입돼 있다. 다음 포스코켄텍(7.35%), 지에스홀스피(5.31%), 파라다이스(4.58%) 순이다. 코스닥 시장 수익률과 괴리를 줄이기 위해 시총 1위 기업은 무조건 편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차동호 KB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고배당 상품의 목적은 코스닥 지수를 꾸준히 이기는 것"이라며 "배당만 기준으로 삼으면 바이오주가 편입되지 않아 코스닥 시장과 괴리가 커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이전 상장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시총 1위가 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다. 다만 그는 "해당 ETF는 매년 5월 중순에 종목 리밸런싱(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탈 영향도 5월 중순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임대료·청약문턱 모두 낮춘 공공지원임대주택 '주목'

'뉴스테이' 장점에 공공성 추가
시세 70~85%·8년 거주 보장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은 과거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해 부동산대책이 등장, 일반분양 청약이 까다로워지면서 무주택·저소득층 우대 등 공공성이 높았다. 공공지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19~39세 1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층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해 전 가구의 20% 이상 물량을 배정, 시세의 70~85%로 공급한다. 또한 8년 거주 보장,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적용된다. 전 가구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당연히 청약가점이 적은 무주택서민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택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평균 월세가 크게 올랐다. 전국적으로 한 달 새 10.90% 상승했고 서울은 19.42%, 수도권은 16.84% 등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8~12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7% 올랐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 직전인 지난해 7월 28일 기준 상승률(0.57%)을 회복한 수준이다. 1순위 자격 강화, 청약가점제 확대 등으로 서울 등 조정지역의 청약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조건

이 안 되는 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수년간 이사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기회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월세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기세"라며 "높은 월세, 까다로운 청약조건 등으로 서울에서 밀려났던 수요자들이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우선 서울에서는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선보인다.

범강연영과 동부건설은 이달 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구 한일시멘트 부지)에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번에 871가구를 공급한다. 주택형은 59~84㎡(최소공급 74~84㎡)이다. 입주민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연간상승률은 2.5%이내로 제한된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걸어서 3~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된다.

서한은 올 상반기 대구 달서군 구지면 창리 대구국가산업단지 A2-2블록에서 '대구국가산업 서한이다움' 66~84㎡ 1038가구를 공급한다.

계룡건설은 오는 3월 경남 김해 울하2지구 A2블록에 '울하지구 리슈빌' 55~59㎡ 974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롯데건설은 오는 7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b22블록에서 '김포한강 롯데캐슬' 67, 84㎡ 912가구를 공급하고 포스코건설은 오는 9월 인천 부평구 심정2구역 일원에서 '인천 심정2구역 더샵' 5695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KT&G, 저평가 우량주... 작년 수출 1조"

업계, 연평균 11% 수출성장세 전망
"배당 수익률 4%, 저가 매수 기회"

KT&G가 주식시장내 저평가 우량주로 주목받고 있다.

고배당주인 KT&G 주가는 지난해 12월 27일 배당락 이후 전일 증가 기준 7% 가량 하락한 상태다. 2016년에도 KT&G는 연말 배당락 이후 연초 주가가 8% 이상 내렸다가 반등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희 연구원은 17일 KT&G의 평가가치가 여전히 동종 업체보다 낮아 매력적인 수준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했다. 한 연구원은 올해 KT&G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작년보다 6.5% 증가한 5조475억원과 1조6119억원으로 예상했다.

KT&G의 가장 큰 강점은 수출.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KT&G가 지난해 최초로 해외수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KT&G가 연평균 11%의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1999년 26억 개비에 불과하던 KT&G의 해외 판매량은 2002년 민영화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 2016년 487억 개비를 판매해 9414억원 해외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역시 3분기까지 415억 개비를 달성해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KT&G는 2025년까지 '글로벌 톱4' 담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계획까지 발표하며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KT&G의 수출 호조로 우리나라 담배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KT&G가 지난해 말 선보인 쉐어링 전자담배 '릴'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평가도 K



KT&G의 쉐어링 전자담배 기기 릴(릴)은 올해 국내에서 200만대 이상 팔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담배 수출의 경우 연평균 11% 이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T&G에는 긍정적이다. 삼성증권 조상훈 연구원은 "KT&G의 쉐어링 전자담배 '릴'은 경쟁사 제품인 '아이코스'와 '글로벌' 대비 후발주자임에도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며 "쉐어링 전자담배는 감소하고 있는 담배 시장 규모를 지지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꾸준한 배당 증가도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KT&G의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 3900원에서 올해 배당성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50% 수준인 4500원까지 기대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심은주 연구원은 "올해 주당 배당금 4000원을 가정할 경우 시가 배당수익률이 4%에 육박한다"면서 "지난해 4분기 실적 우려에 기인한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고 분석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대기업 사로잡은 스마트팩토리 SW 강자 "글로벌 진출"

| IPO 기자간담회 |

링크제니스

스마트팩토리의 핵심기술 플랫폼
공모희망가 밴드 주당 2만2000원~

스마트팩토리의 핵심기술인 생산정보 자동화와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링크제니스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링크제니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8~19일 수요 예측과 25~26일 청약을 거쳐 기술특례로 다음달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링크제니스는 국내 생산정보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 시스템검증자동화 소프트웨어에서도 국내1위의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81억 6900만원의 누적매출을 달성했으며 누적 영업이익 21억원, 당기순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링크제니스의 대표 사업 중 하나는 생산정보자동화 기술이다. 이는 스마트팩토리의 핵심기술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 내 수 많은 장비의 자동화



정성우 링크제니스 대표이사.

/링크제니스

플랫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시스템검증자동화다. 이는 사물인터넷(IoT)과 연관이 깊은 분야다. 각종 정보기술(IT) 기기의 사양과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자동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 대표는 "현재 삼성과 엘지 등 시스템 자동화 기술과 생산정보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우리 회사의 고객이다"며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링크제니스는 올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로 잡고 있다. 생산정보자동화 소프트웨어는 중국(베

이징·중칭·상하이·선전)시장, 시스템 자동화는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 40억원 달개는 5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ATC(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술 5건에 대한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링크제니스의 공모희망가 밴드는 주당 2만2000원~2만5000원이고 신주 공모 없이 구주 30만주(자사주)를 매출한다. 오는 2월 5일 상장된 링크제니스의 상장주관은 하나금융투자가 맡았다.

/정연우 인턴기자 yw964@